

헤어스타일에 있어 Yellow 이미지와 活用

宋 熙 羅

大元科學大學 메이크업코디과 教授

Yellow Image and Application on Hair Style

Song, Hee-Ra

Prof., Dept. of Make-up and Coordination, Daewon Science College

Abstract

The various colors are used in our whole life as much as the modern society is called "the age of colors". The colors in the hair style express the individual taste, personality and the psychological condition, and play an important role as a visual language.

The western people, who has thought that the blonde hair is a symbol of beautiful woman from the ancient times, has tried to get the blonde hair continuously even though they had not the technique of hair dyeing.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eople whose hair color is usually dark brown or black, enjoy a various hair color due to the development of dyeing and decoloration technique.

In this study, I deal with the yellow hair style, the most prevalent color which i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in the our times.

Key words: Yellow(노란색, 황색), Color(색채), Hairstyle(헤어스타일), Hair Coloring(염모)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현대 사회는 "색채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색채는 우리의 정서와 행동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에서의 색채는 예측, 적용, 표현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되어 개인의 기호, 개성,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각 단계에서 색채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 차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색채를 사용한다면, 미적 효과를 높이고 디자이너가 나타내고

자 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¹⁾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미인의 조건으로 금발 머리를 꼽아, 인공적인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조차 황색계열인 금발머리를 얻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흑단 같은 검은 머리에 흰 피부가 미인의 조건이었고,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짙은 밤색이나 검정색 머리 일색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염색과 탈색기술의 발달로 헤어컬러가 다양화되어왔다.

황인종인 우리나라 사람에게 노란색 계열의 헤어컬러는 얼굴과 따로 논다는 느낌, 다른 사람의 눈에 너무 튀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하지만, 현대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 패션모델,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패

선리더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연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색채 중 황색을 중심으로 상징 이미지와 황색의 특성 및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황색 연출 방법을 조사하고 20대 초반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황색 헤어 시술 여부 및 인지 경향, 선호하는 황색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여, 차후 현대 헤어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Yellow(황색)의 일반적 성격, 즉 황색의 정의와 상징적인 의미를 분류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선행하였다. 그리고 색채 자료로 인용된 내용을 기준으로 각종 색채관련 서적, 이미 발표된 논문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황색이 사용되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상징성을 분류하고 황색의 특징을 규명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황색을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논문, 잡지, 단행본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황색에 대한 조사의 경우 일반적인 황색의 범위를 포괄하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고, 21세기 컬렉션 작품 및 우리나라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패션 리더들의 헤어스타일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황색 헤어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일반인이 인지하고 있는 황색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대 초반 미용관련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용관련과 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들이 다른 과 학생들에 비해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민감하여 패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실제 생활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방법을 통한 설문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황색 헤어스타일 시술 경험 여부, 선호 황색 헤어스타일의 인지 경향, 선호하는 황색 헤어스타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문

항을 기초하였다. 개별 면담을 통하여 회수된 113부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00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후 헤어스타일 디자인 및 헤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Yellow(노란색, 황색)의 용어정리

황색은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알려진 색이다. 노란색은 빨간색, 파란색과 함께 일차 색으로 순수한 우리 말로는 “노랑”이고, 한자어로는 “黃”이라 한다.

프리즘에 태양 광선이 비추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단색 광으로 분광되며 스펙트럼을 형성하는데 노란색은 576nm ~580nm 사이의 중간 정도의 파장을 가지며 스펙트럼에서 다른 색에 비해 좁은 범위로 나타나는 색광으로서 감법혼색으로 이루어지는 색료의 3원색 중의 하나이다.²⁾ 노란색의 광선은 신경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뇌를 자극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신경 자극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며 정신적인 흥분제로서 망막에 뚜렷한 상을 맺게 하여 상쾌하고 찬란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노란색은 일반적으로 따스한 느낌을 주며 자극적인 흥분을 준다. 차가운 색에 비해 실지 크기보다 팽창하여 커 보이는 팽창색으로 명시성이 매우 높은 색이며 특히 회색과 검정의 배경에서 가장 높은 명시성을 갖게 되며 주목성이 높아 시각 전달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순색의 노란색은 빨강이나 녹색의 기미를 전혀 띄지 않는 색이며, 이 순색의 불투명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등황색이나 적등색으로 동화된다.

한국산업규격 KS A0011(한국 표준색 이름체계)에서는 물체의 색 이름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색의 하나로 노랑이 제시되었고 영어로는 YELLOW로 표기하고, 약호로는 Y로 규정한다.

표준 노랑은 멘셀 표색계에서 2.5Y 8/12 정도에 해당하며 시안(청록, cyan), 마젠타(붉은 보라, magenta)와 더불어 컬러 사진이나 인쇄의 삼원색이 되며 보색은 청색이다.³⁾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누렇다, 노랑 혹은 노란색이라는 색깔을 표현하는 정의를 비롯하여 “황”이라고 하는 중국 “주” 도시국가의 형태로 B.C 1100년경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하여 이후로 약 850년 간 계속된 왕조의 이름 그리고 중국의 오방색에서 유래되어 중앙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말에서 황색을 표현하는 계통색명은 다양하다. 노랑(8/12)을 비롯하여 해맑은 노랑(9/3), 밝은 회노랑(8/3), 회노랑(6.5/3), 어두운 회노랑(5/3), 점노랑(3/2), 연노랑(9/7), 우중충한 노랑(7.5/7), 어두운 노랑(5.5/6), 밝은 노랑(9/12), 진노랑(6/10), 섯노랑(8.5/14) 등 10여종이 있고 KS에서 규정한 관용어 역시 베이지(10Y 6.5/2.5), 상아색(2.5Y 8.0/1.5), 뱀플스색(2.5Y 8.0/7.5), 크롬 옐로우(3.0Y 8.0/12.0), 겨자색(3.5Y 8.0/11.5) 크림색(5.5Y 8.5/3.5), 카나리아색(7.0Y 7.5/10.0), 레몬색(8.5Y 8.0/11.5) 등 열 가지를 들 수 있다.⁴⁾

동양에서 황색의 범주에는 “유황색”, “면황색”, “담황색”, “송화색”, “자황색”, “행황색”, “두록색”, “적황색”, “토황색”, “지황색”, “토색”, “치자색”, “홍황색”, “자황색”, “금색”을 포함한다. 또한 조선시대 고문헌에 보이는 한국어 표기의 노란색 명을 보면, 노랑 두록색, 노란 미색, 주황색, 황낭색, 금향색, 송화색이 있어 예로부터 노란색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황색의 연상 이미지

색채가 여러 가지 연상을 일으키고 상징적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로 이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적인 배경, 지역과 풍토에 따라 개인차가 심한 경향이 있다. 또한 색채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가끔 경험하는 사실이며 색에 따라 받는 인상이나 감정은 무척이나 다양한데 이것은 이전의 수많은 감각적 경험들이 연상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재생되어 다양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색채가 지닌 색상 명도 채도의 특성에 따라 그려지는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매우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며 자극적인, 고

요한, 부드러운, 명량한, 강한, 우울한 등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랑은 희망, 유쾌, 리듬감, 개방감, 햇빛, 계몽주의, 지성, 젊음 등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색으로 이미지 결합과 인상에서 보면 힘을 돋우고 당당하며 생명을 주는 태양의 이미지를 암시한다. 또한 노랑은 특유의 활동성과 쾌활함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 중의 하나이며 아이들에 관한 이미지를 연상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색이기도 하다.

색채가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운동성을 줄 수 있는데 녹색이 가장 운동량이 떨어지는 색인 반면 노랑은 운동량이 가장 높은 색으로 매우 경쾌한 느낌을 준다. 빨강 역시 강하고 약동적이며 활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노랑은 이에 비해 작고 가볍고 빠른 느낌을 준다. 20세기 초 독일의 바우하우스의 교수이자 화가인 칸딘스키는 노랑과 삼각형을 같은 조형 요소로 해석하고 가장 활동성이 높은 색으로 보았다.

유채색 가운데서 가장 명도가 높은 색으로 사물을 실제 보다 크고 또한 가까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색이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기분을 고조시키는 것도 그 밝기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랑은 밝아질 때는 순색의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어두워지면 쉽게 순색의 이미지를 잃게 된다.

즉 노랑은 밝지 않으면 그 자체의 속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며 팽창색이므로 지루함, 단조로움, 피로감을 주게된다.

- * 노랑의 긍정적 이미지 - 쾌활함, 생동감, 환희, 경쾌, 희망, 호기심, 리듬감, 귀여움, 개방감
- * 노랑의 부정적 이미지 - 값싼, 경솔함, 질투
- * 노랑의 구체적 연상 - 달, 병아리, 해바라기, 레몬, 바나나, 파인애플.⁵⁾

노랑은 강박, 불안, 흥분, 질투, 배신, 기만, 즐거움, 외향적, 도약과 힘의 발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란색의 긍정적(적극적)이미지는 행복하고 쾌활한 느낌을 주는 것이고, 부정적(소극적) 이미지는 색이 너무 강했을 때 이기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다.

노란색은 연상 효과 때문에 포장이나 광고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코닥 필름의 노란색 포장지는 금빛 모래나 해변가를 연상시켜 행복감을 주어 매출과 연관 시킨다.

또한 노란색은 명료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 표지판 또는 어린이의 비웃에 많이 쓰인다. 같은 물건을 놓고 볼 때 노란색과 흰색의 물건이 가장 크게 그리고 빨간색, 녹색, 청색이 그 다음 크기로 보인다.⁶⁾

3. 황색 염모의 역사

금발은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서기 500년경에는 자신의 모발이 금발이 아닐 경우에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금발을 얻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중세에는 금발이 아닌 사람은 신분과 품성이 부족하고 야만국가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앵글로 색슨족은 금발이 멋있고 자유의 몸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고 어두운 모발은 공격적인 켈트족의 색, 즉 추한 색으로 생각하였다.⁷⁾ 시대마다 선호한 헤어스타일, 염색색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황색 염색이 주가 되었던 때를 기준으로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1) 고대

인류의 모발 염색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 고대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33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사트(Sat)공주가 헤나(Henna)를 사용하여 모발 염색을 한 것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고, 고대 수메르인은 머리 카락에 황갈색 가루를 뿌렸고, 이집트인들은 적갈색의 반사색을 주기 위해서 헤나를 사용하였다.⁸⁾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녀 모두 금발 머리를 선호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햇빛이 탈색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테네에서 특별히 만든 연고로 머리를 감은 후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오랜 시간 햇볕에 앉아서 아름다운 금발 머리가 되길 기다렸다.⁹⁾ 또한 잿물로 표백하고 노란 꽃을 으갠 물에 머리를 행구어 황금색으로 착색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여기에 오일이나 향수로 윤을 내었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사용하였다.¹⁰⁾

2) 근세

16세기에는 깃털, 보석, 메달로 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여성들의 머리 형태는 중세 말기의 머리 전체를 덮었던 머리 장식이 없어지자 다시 머리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염색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행한 색은 금색, 적색이었으며 청색은 하류 계급만 사용하였다. 또 향기로운 머리 분을 사용하여 향기가 나고 윤기가 나게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남녀 모두 가발을 사용하거나 염색을 하였는데, 특히 브라운(Brown)색상을 선호하였다.¹¹⁾

블론드(Blond) 머리는 이탈리아에서도 유행하였는데, 검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밝게 하기 위해서 고상한 베네치아 여인들은 크라운(뚜껑)이 없는 모자를 쓰고 태양 아래 앉아 있었다.

솔라나(Solana)라고 불리는 이 모자는 황산 알루미늄(Alum), 검은 황(Black Sulphur) 그리고 벌꿀의 혼합물로서 머리를 코팅 할 때 하나의 화덕과 같은 구실을 하였다. 특별한 태양 테라스를 그들의 지붕 위에 만들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3-4시간 동안을 아르테 비온데지엔트(Arte biondegiate)를 쓰고 염색을 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베네치아 컬러링은 티시아언(Tixian)과 틴토레토(Tintoretto)와 같은 예술가에 의해 영원 불멸해졌다.¹²⁾

3) 근대

19세기에는 가발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머리에는 염색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의 머리 분도 발랐다. 19세기 동안에는 어두운 갈색과 검은 모발이 유행되었다.

과산화수소는 1818년에 발견되었고, 1860년 나폴레옹의 애인인 코라 피얼(Cora Pearl)에 의해 모발을 밝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다. 1867년에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런던의 화학자 띠엘리(E.H Thieellay)와 파리의 헤어디자이너인 로엔 휴고(Loen Hugo)에 의해 과산화수소로 모발을 밝게 만드는 시범이 보여졌다.

1863년 하우스만(Haussman)은 동물 섬유를 염색하는데 최초로 인공합성 염료 중의 하나인 파라필렌디아민(Parapheylenediamine)을 발견하였고, 1883년에는 인모 염색에도 사용하였다.¹³⁾

4) 현대

20세기 초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처방은 고대 시대와 거의 같은 방법이었다.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모발을 염색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사용되었던 라스틱은 염과 금속 산화물에 타닌(Tannin)이 첨가되었다. 이 처방전은 1924년 향수 제조가이며 화학자인 유니아스(Qunius)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다.

1920년대 이전의 인공 산화 염색은 주로 흰머리를 커버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여성들의 자유 의식고취와 새로운 패션의 영향으로 산화 염색이 많이 개선되었고 과거의 장벽이 무너지며 새로운 붉은 모발에 창출되기 시작하였다.¹⁴⁾

1930년대에는 화학 염모제의 개발로 환상적 헤어스타일의 연출을 가능케 했고 크로랄(Cloral)사의 앰플 덕분에 몇 시간 동안만에 최신 유행색인 금색, 청색, 장미색 등으로 모발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또 금 은색, 자연색 스프레이 타입도 있어서 다음 날 다시 그것을 모발 원래의 색상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는 금발, 백발 등 다양한 색깔이 유행했는데 1931년 미국에서는 초록의 뉘앙스가 인기를 끌면서 미국 여성 75%가 염색을 하였고, 특히 핑크빛 오렌지가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의 유행 모발색은 백금색이었는데 빨리 자라는 모근으로 인해 염색을 자주 해야하였다.¹⁵⁾

1960년대까지 염모제의 사용이 매우 일반화되었고 미국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잡지는 “취색 블론드의 시대가 지나가고 당근색의 붉은 머리, 구두광나는 갈색머리, 복숭아색, 구리빛, 흰색, 초콜릿색, 그리고 황금색으로 머리색이 변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드레빙(Drabbng)은 화이트나 샴페인 색의 린스 컬러를 도포하여 밝은 색(특히 붉은색과 노란색)의 톤을 낮출 때 사용한다. 프라스팅(Frosting)은 머리 윗 부분의 모든 작은 머리단을 블리치(Bleach, 탈색)하는 것을 말하고, 스트리킹(Streaking-탈색에 의한 부분 Tone-up의 다른 말)은 얼굴의 헤어라인(Hairline: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선)에서 시작하는 넓은 몇 개의 머리카락을 블리치하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모발염색전문가는 스트레이트나 색이 밋밋한 곳의 스타일을 내기 위해 스탠실을 이용하여 색

을 입혔다. 다른 유행 테크닉에는 앞머리 부분에 각각의 다른 색을 추가하거나 또는 파티팅(Parting: 작업하기 편하도록 머리를 적절한 양으로 나누는 것)의 한 면에 굵은 띠 모양으로 색을 입히는 것이 있다. 1970년대 말 동안에 펑크(Punk) 열풍이 일어났는데 핑크, 레드, 오렌지 그리고 노란색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담한 컬러 테크닉의 사용이 1980년대 더 많은 테크닉에 의해 대체되었다.

컬러링(Coloring)을 위해 선택된 머리에서 위브(weave: 염색을 할 때 모발을 파내어 선택된 모발에만 염색하는 방법)해 낸 모발에 몇 가지의 보충 색과 밝기의 결과를 주는 중화 테크닉과 거북이 등 하이라이트(Highlight:모발의 밝기를 더해주기 위해 보다 밝은 색을 선택된 작은 부분에 탈색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 색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테크닉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⁶⁾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체적인 머리 염색 보다는 액센트를 주거나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대담한 컬러링(Coloring)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는 연예인이나 모델들을 중심으로 모발 염색이 급격히 유행하면서 여성들 뿐 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확산되어 더욱 다양해지고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헤어 패션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¹⁷⁾

III. 황색의 배색

우리들은 색을 볼 때 결코 단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색과 함께 보고 있는 것이므로 주위의 색과 조화감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보인다. 따라서 배색을 할 때 그 배색이 조화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색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좋은 색이라 하더라도 다른 색과 조합하였을 때 조화감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색이 조화되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배색에 있어 위화감이 없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인상을 전달함을 의미한다. 개인에 따라 조화로운 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젊음이 넘치고 건강하게 보이는 색, 명랑하게 보이는 색이 된다고 하였다.¹⁸⁾ 노란색은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이어서 이로 인해 눈에 띄는 첫 번째 색이다. 어두운 프린트 용지에 사용되면 용지가 드러나 보이며 더욱 생동감 넘치게 보인다. 밝은 노란색은 물에 빠진 사람과 고속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눈에 잘 띄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의복에 종종 사용된다.

노란색은 가장 정신 분열적인 색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밝고, 깨끗하고, 신선한 색이나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도구나 주위 환경의 지배적인 색으로 사용된다. 불안한 감과 자극적인 반응을 조장하기 쉬운데 이는 노란색이 매우 활동적이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색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육원의 배경이 노란색이면 어린이들이 자주 울며 싸우게 된다 그러나 연한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조화와 질서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¹⁹⁾ 더욱이 노란색은 시간의 흐름이 매우 늦은 감을 준다.

노란색은 문 그로우(moon glow)계통의 피부색보다는 선 라이트(sunlight) 계통의 피부색에 잘 어울리는 색이나 입기 전에는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노란색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전체적인 복장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수영복 색깔로서는 훌륭하다. 밝은 계통의 노란색은 브라운 계통의 피부색과 좋은 대조를 이루며 황갈색(햇빛에 탄 빛깔)을 돋보이게 한다. 노란색은 검은색 또는 회색과 섞여 흐리게 될지라도 영향은 계속 유지된다. 겨자색은 피부색을 매우 창백하게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는 선 라이트(sunlight)와 문 그로우(moon glow)계통의 피부색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머리카락도 또한 다양한 명도와 채도를 갖는 빨강에서 노랑의 색상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피부색의 분석과 동일한 도표와 방법이 머리색의 분석에 사용되나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대체로 순색의 노랑에 근접할수록 명도는 더 밝으며(블론디) 빨강에 근접할수록 명도는 더 어둡다. 원래 밝은 핑크색 또는 어두운 순 노랑의 머리는 거의 없다. 모발색은 겨울에 더 어두울 것이며 한여름 태양의 노출에선 더 밝을 것이다. 머리색의 변화의 용이함과 자유로움으로 전통적인 "유형"들은 사라져 가며 피부, 머리, 눈의 색 중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의 선택이 등장하였다.

머리는 대체로 피부보다 어둡지만 백발인 검은 사람의 피부, 또는 검게 그을린 블론디와 같이 극히 드문 경우도 있다. 대체로 피부와 머리의 명도가 근접할수록 적합한 의복색, 메이크업의 색의 범위는 좁아지며, 피부와 머리의 명도 대비가 클수록 사용하기에 용이한 색깔들이 더 많아진다.

피부색과 모발 색의 명도 차가 많이 날수록 여러 계열의 색들이 어울리며, 노화되면서 피부가 빛을 잃어가고 모발 색도 열어지므로 강한 색보다는 부드러운 색조가 어울린다.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황색 헤어스타일

1. 염·탈색에 의한 황색

염색에 의해 검정 색의 버진 헤어(Virgin Hair: 새로 자라는 모발)의 색상을 바꾸는 데에는 11-12명도(Wella Level Scale기준: <그림 9>)까지 가능하고 더 밝은 황색으로 연출하길 원한다면 탈색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탈색의 경우 모발은 아주 어두운 단계부터 밝은 단계까지 7등급에서 10등급을 통해 변화한다. 검은 모발 자연색소는 검정에서 갈색, 붉은색, 붉은 금발, 노랑색, 블론드 그리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블론드에 이른다. 어떤 등급의 탈색은 다른 등급에서 보다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 모발의 검정색 →적보라→적색의 3등급까지 이르고 나면 다음 단계인 붉은빛 오렌지에서 오렌지로 탈색되기 위해서는 앞서 탈색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중 7인 황금색에서 노란색까지는 다른 등급보다 1-3시간이 더 필요하며 한번의 탈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발 탈색과정에서 탈색에 요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 요인인 자연모발 색상(멜라닌의 유형), 모질(가는 모, 두꺼운 모 등), 모발의 길이, 모발의 상태에 따른 두피 상태 및 환경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다.²⁰⁾ 때문에 원하는 노란색의 명도가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 번의 탈색을 거친 모발손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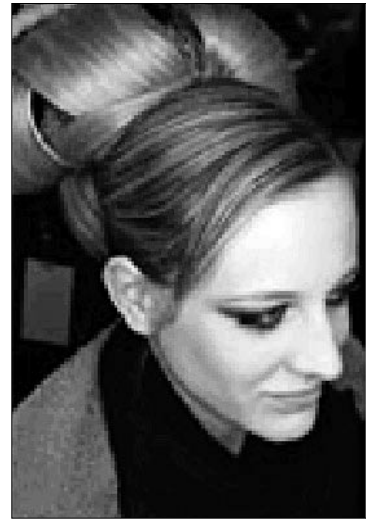
현대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황색의 명도는 점점 더 밝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프 꾸뛰르나 프레타 포르테



<그림 1> 2003 S/S Collection Y&Kei



<그림 2> 2003 F/W Milano Collection Evisu-Master



<그림 3> 2003 F/W New York Collection Zang-Toi

켈렉션의 경우 백인 모델의 경우에도 금발 모발에 더 탈색을 하여 거의 흰색에 가까운 황색 헤어스타일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림 1).

부분 탈색의 경우에도 호일 테크닉 등에 의해 명도 차를 두어 황색끼리도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그림 2)(그림 3).

2. 브레이딩(Braiding) 익스텐션(Extension)에 의한 황색

브레이딩 익스텐션(땃기 기법에 의해 머리 길이를 연장한 스타일)은 본인의 실제 머리와 같이 느껴지고 움직여지며, 그것을 스타일로 만들고 컨트롤하기가 쉽다. 또한 브레이딩 헤어는 자다 일어난 듯 헝클어진 섹시한 헤어스타일로 매력적인 인상을 주어 최신의 감각으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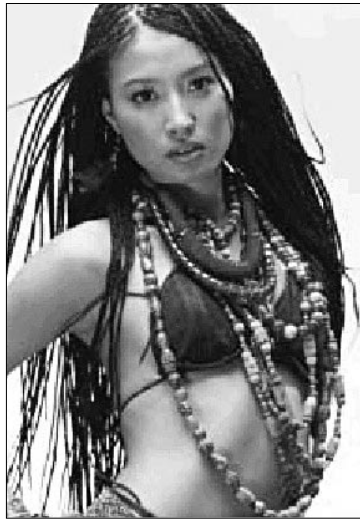
브레이딩 익스텐션은 패션쇼장에서 보다는 가수를 비롯한 TV 연예인이나 패션리더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그림 4). 처음엔 모델 본인의 머리색에 황색 실을 사용해서 땃았었지만, 근래엔 몇 번의 탈색을 거친 밝은 황색 모발에 흰색 위주의 실을 사용하여 브레이딩하는 방법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명도

가 더 밝아져서 탈색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도의 헤어칼라 연출이 가능해진다. 브레이딩 재료 또한 단순한 면, 견, 모 합성사 등의 실에서 머리카락 형태로 나온 파이버(Fiber)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파이버의 경우 백콤(Back Combing: 모발다발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두피를 향하여 빗을 이용하여 거꾸로 빗질함으로써 볼륨을 주는 것) 기법에 의해 형태를 부풀릴 수 있으므로 과장된 질감 표현도 가능하다(그림 5). 브레이딩 헤어는 혼자서 연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캐주얼한 의상과 매치하면 스포티한 멋을 낼 수 있다.

엠마누엘 웅가로(Emmanuel Ungaro) 쇼의 헤어를 담당한 비달사순(Vidal Sassoon)의 수석 에디토리얼 디렉터 피터 그레이(Peter Gray)는 땃는 머리로 연출할 수 있는 이미지의 다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굵은 웨이브 헤어를 느슨하게 땃아 보우 매듭으로 마무리한 모델은 보티첼리의 그림 속 여인처럼 우아하면서 로맨틱하였고, 머리중간 부분을 땃아 정수리 부분에 고정시킨 모델은 인디언을 연상시켰다(그림 6).

3. 오브제를 이용한 황색 헤어스타일

황색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에 있어서 오브제의 사용



<그림 4> 2003 샤크라 황보



<그림 5> 2002 아모스프로페셔널, 아모스 헤어 컬렉션 'Free'



<그림 6> 2002 S/S 뉴욕밀라노 Vidal Sassoon

은 황색 피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황색이라는 색상 특성상 금속 느낌의 오브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피를 가로와 세로로 절개해 붙이고 사이사이에 화려한 금속 스팅글과 비즈, 자개를 달아 만든 스커트와 한쪽 소매만 달린 섹시한 디자인의 톱, 한국 14-18세기 복식사를 연구해 3시간에 걸쳐 완성한 줄리앙 디스(Julien Dis)의 헤어는 이정우의 드레스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여성스러운 분위기 더한다(그림 7).

그 외에도 엄정화의 앨범에서 보여지는 머리장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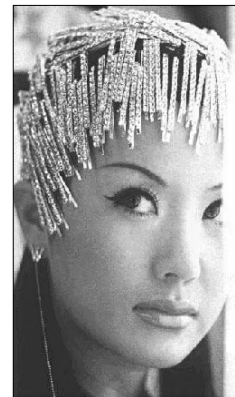
금속 핀을 이용하여 머리카락과 핀이 일체화된 구조적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8).

V.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

· 자신이 느끼는 황색 헤어의 정도는 조사 대상자 36명이 12-15사이를, 27명 11-15를, 21명이 10-15로 답하였다(Wella Level Scale 기준, (그림 9)).



<그림 7> 2000 F/W Paris Collection 이정우



<그림 8> 2003 엄정화

· 황색 헤어스타일을 해 본 경험은 79명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들 중 실제 자신이 해본 황색 헤어스타일은 42명이 염색, 17명이 탈색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염색과 탈색을 다 해보았다는 응답도 32명이었다. 그러나 익스텐션과 브레이딩에 의한 황색 헤어스타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조사되지 않았다.

·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으로는 '머릿결이 손상되거나', '푸석푸석해 보인다' 등 모발건강과 관련된 불만사항이 36명, '붉은기가 돌거나 원하는 색상으로 나오지 않았다' 등 색상과 관련된 불만이 27명이었고, 그 이외에 머리가 자라면서 검게 나오는 버진 헤어 때문에 지저분해 보인다, '얼굴이 커 보인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 '황색 헤어스타일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는 물음에 24명이 좋아하는 편이다, 20명이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44명이 황색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보통이다'에 52명이 응답하였고, '매우 싫어한다'는 한 명도 없으며, '싫어하는 편이다'

<표 1> 황색 헤어의 정도

내 용		%
자신이 느끼는 황색 헤어의 정도	웰라 레벨스케일 9-15	8
	웰라 레벨스케일 10-15	21
	웰라 레벨스케일 11-15	27
	웰라 레벨스케일 12-15	36
	웰라 레벨스케일 14-15	8

<표 2> 황색 헤어스타일 시술 경험 유무

내 용		%
황색 헤어스타일을 해본 경험 (79%)	염색	42
	탈색	17
	염색+탈색	32

<표 3> 황색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내 용		%
황색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모발 건강과 관련	36
	색상 관련	27
	그 외	37

에 4명이 있어 헤어스타일에 있어 황색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황색 헤어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대답한 44명중에서 그 이유로 황색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고 얼굴이 환해 보여서 좋아한다'고 15명이 대답하였고 '시원해 보여서' 6명, '머리가 가벼워 보여서' 6명, '자연스럽거나 무난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12명이었다. 그 외에도 '이미지가 부드러워 보인다', '세련되어 보인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반해 황색을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이유로는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등 단정성에 관련된 응답이 15명, '머리가 상해 보인다' 9명, '얼굴이 커 보인다' 6명, '값싸 보인다' 6명이 있었다.

· 황색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로는(중복대

<표 4> 황색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정도

내 용		%
황색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정도	매우 좋아한다	20
	좋아하는 편이다	24
	보통이다	52
	싫어하는 편이다	4
	매우 싫어한다	0

<표 5> 황색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내 용		%
황색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눈에 띄고 얼굴이 환해 보여서	15
	자연스럽거나 무난해 보여서	12
	시원해 보여서	6
	가벼워 보여서	6

<표 6> 황색의 이미지

내 용		중복대답, %
황색의 이미지	활동적이다	60
	값싸 보인다	30
	자연스럽다	24
	지저분해보인다	21
	특별하다	21
섹시하다	21	

답 가능) '활동적이다' 60명, '값싸 보인다' 30명,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 24명, '지저분해 보인다' 21명, '특별하다' 21명, '색시하다' 21명이 있었다.

· 조사자 100명 중 17명이 현재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머리 결 손상이 걱정되어서'가 30명, '날씨가 추워지므로 황색이 차가워 보여서'라는 응답이 15명 '버진(새로 나는 머리) 헤어의 재 염색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6명이었다. 그 이외에도 '예전에 하였던 머리스타일이라',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서' 등의 응답도 있었다.

·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경우의 느낌으로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띈다' 39명, '얼굴이 밝아 보인다' 18명, '이미지가 부드러워 보인다', 6명, '개성적으로

<표 7>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경우의 느낌

내 용		%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경우의 느낌	다른 사람 눈에 잘 띈다	39
	얼굴이 밝아 보인다	18
	이미지가 부드러워 보인다	6
	개성적으로 보인다	6

<표 8> 황색 헤어스타일을 한 후 모발 손상 시 대처 방법

내 용		%
황색 헤어스타일을 한 후 모발 손상 시 대처 방법	트리트먼트 관리	58
	에센스 사용	9
	두피 마사지	6

<표 9> 해보고 싶은 황색 정도

내 용		%
해보고 싶은 황색 정도	9YY(가장 밝은 황색)	15
	9Y(가장 밝은 황갈색)	12
	8G(아주 밝은 황금색)	24
	6G(황금색)	12
	10N(베이지색)	9
	7Y(밝은 황갈색)	9
	7YY(밝은 황색)	9
	기 타	10

보인다' 6명, '본인의 원래 이미지와 달라 보인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실제로 황색 헤어스타일을 한 후에 모발 손상 시 대처한 방법으로는 '헤어 팩 등을 이용한 트리트먼트 관리를 하였다'가 58명, '에센스를 주기적으로 발랐다' 9명, '두피 마사지를 했다' 6명, '자연건조를 시켰다', '미역과 같은 두피와 모발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 등의 대답이 있었다.

· 모발 손상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이 해보고 싶은 황색 머리 정도로는(AMOS Tritint cream hair color 차트 기준<그림 10>) 8G(아주 밝은 황금색)가 24명, 9YY(가장 밝은 황색)가 15명, 6G(황금색)가 12명, 9Y(가장 밝은 황갈색)가 12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없는 명도가 밝은 황색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 앞으로 자신이 해보고 싶은 황색 헤어스타일 종류로는 '염색에 의한 황색'이 33명, '탈색에 의한 황색'이 33명, '익스텐션에 의한 황색'이 19명, '피스·인조 파이버 등 브레이딩에 의한 황색'이 15명이었다. 이를 통하여 황색 헤어스타일에 있어 염색과 탈색에 의한 선호도는 뚜렷하게 높지만, 브레이딩 익스텐션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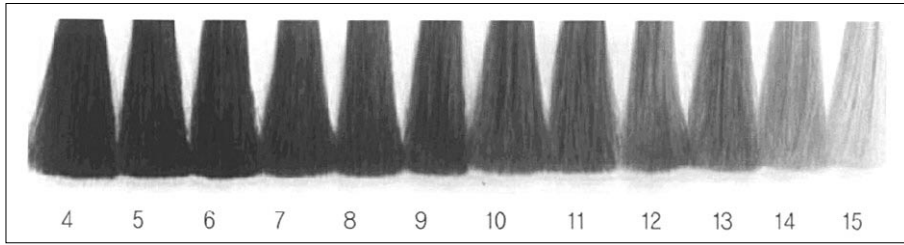
· '황색 헤어스타일은 어떤 패션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2명이 '캐주얼'이라 응답하였고, '정장' 9명, '드레시한 의복'에 9명이 응답하였다.

<표 10> 해보고 싶은 황색 헤어스타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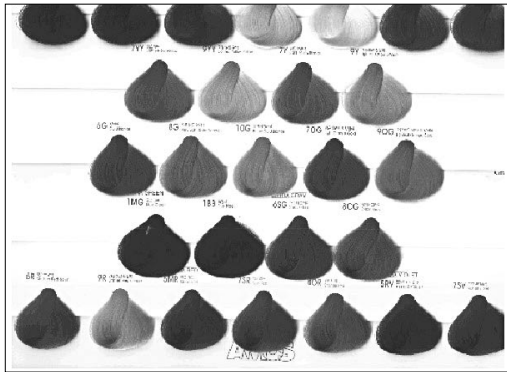
내 용		%
해보고 싶은 황색 헤어스타일의 종류	염색에 의한 황색	33
	탈색에 의한 황색	33
	익스텐션에 의한 황색	19
	브레이딩에 의한 황색	15

<표 11> 황색과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

내 용		%
황색과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	캐주얼	72
	정장	9
	드레시한 의복	9



<그림 9> Wella Level Scale



<그림 10> Amos Tritint cream hair color 차트

VI. 결론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알려져 있는 황색은 빨강색, 파란색과 함께 일차 색으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노랑’이며, 한자어로는 ‘황(黃)’이라 한다.

현대 패션에서 황색 헤어스타일의 표현 방식으로 염·탈색에 의한 방법, 브레이딩 익스텐션에 의한 방법, 오브제를 이용한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다. 염·탈색에 의한 방법은 원하는 황색의 명도가 밝을수록 모발 손상이 크게 되지만 거의 흰색에 가까운 황색까지 명도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모발 손상을 감수하고자라도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머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브레이딩·익스텐션은 재질과 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황색이라도 스포티한 느낌에서 색시하거나 에스닉한 느낌까지 연출의 폭이 넓다. 오브제를 이용한 황색 연출은 황색이란 색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금속성 느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디자인 또한 이러한 금속성 느낌

을 살린 구조적이고 전위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패션쇼의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황색의 범위는 Wella Level Scale 기준 명도 ‘10-15’ 사이로 우리가 흔히 중간 갈색이라고 여기는 중 명도 이상의 황색계열의 색상을 황색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가 대학 1, 2년 생이었지만 대부분 황색 계열의 머리스타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헤어스타일에 있어 황색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아 황색이 보편적 컬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색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황색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고 얼굴이 환해 보인다’, ‘시원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등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헤어스타일에 있어 황색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머리가 정리되어 보이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상해 보인다’ 등의 단정성에 관련된 응답이 많았고 황색은 팽창색이므로 ‘얼굴이 커 보여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황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는 ‘활동적이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정적 이미지로는 ‘지저분해 보인다’, ‘고급스럽지 못하다(값싸 보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황색 헤어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로 ‘캐주얼’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황색 헤어스타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조사 당시에 황색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모발손상이 걱정되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황색은 밝고 환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엔 검정계열의 어두운

색 모발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황색 헤어스타일을 한 후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으로도 '머릿결이 손상되었거나 푸석푸석해 보인다' 등의 모발 건강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가장 많았고,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거나 붉은기가 도는 황색이 나왔다' 등의 색상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황색 헤어스타일을 한 후 모발 손상 시에 헤어팩 등의 지속적인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등 따로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손상을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해보고 싶은 황색 머리는 전체적으로 붉은 기가 돌지 않는 명도가 밝은 황색을 선택하였다. 황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 중에는 '황색은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황색계열의 색 개발 시 금색 느낌을 살린다면 이런 부정적 느낌을 해소하면서, 겨울 칼라로 적용도 쉬우리라 생각된다.

조사를 통해 염색과 탈색에 의한 황색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중에 익스텐션과 브레이딩에 의한 황색 헤어스타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현대 헤어스타일에 활용된 황색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황색 헤어스타일에 관해 살펴보았다. 색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황색이 표현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 차후 헤어스타일 디자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윤현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녹색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
2.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세계대백과사전, (주)동아출판사, 1989, VOL.7.
3. 문은배, 색채의 이해, 국제, 2002, p.140.
4.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1998, p.67.
5. 조기여·이화순·배현숙·김영란·황춘희·추음희·방수진·하영복, Color, 성화, 2003, p.61.
6. 조진아·강근영·이현주·전연숙·송승연, 토털 코디네이션, 훈민사, 2002, p.219.
7. Aavid adams·Jacki wadeson, The Art of Hair Colouring, 예림, 2001, p.4.
8. 황정원·권대순·김세욱·최영진, 염·탈색 이론 및 실기, 고문사, 2001, p.20.
9. 류은주, Clinical Hair Coloring, 청구문화사, 2001, p.23.
10. 황정원·권대순·김세욱·최영진, 앞글, p.21.
11. 황정원·권대순·김세욱·최영진, 앞글, p.21.
12. Leslay Hatton, Colouring, 현문사, 2003, p.218.
13. Leslay Hatton, 앞글, p.220.
14. Leslay Hatton, 앞글, p.222.
15. 황정원·권대순·김세욱·최영진, 앞글, p.23.
16. Leslay Hatton, 앞글, p.222.
17. 황정원·권대순·김세욱·최영진, 앞글, p.23.
18. 조기여·이화순·배현숙·김영란·황춘희·추음희·방수진·하영복, 앞글, p.60.
19.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131.
20. 류은주, 앞글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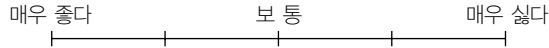
(2004년 4월 30일 접수, 2004년 6월 1일 채택)

<부록>

황색 헤어스타일을 위한 기초 설문지

2003년 10월
연구자 : 송희라

- 1. 자신이 느끼는 황색 헤어의 정도 _____
- 2. 황색 염색 경험 있다 ____ 없다 ____
- 3. 자신이 해본 황색 헤어스타일 종류
 - ① 염색에 의한 황색
 - ② 탈색에 의한 황색
 - ③ 익스텐션(피스·파이버 등 이용)
 - ④ 브레이딩
 - ⑤ 기타 _____
- 4. 황색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 5. 황색 헤어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 6. 황색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 7. 황색 헤어스타일을 싫어하는 이유
- 8. 다음 중 황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 ① 활동적이다 ② 내추럴하다 ③ 모던하다 ④ 여성적이다 ⑤ 남성적이다
 - ⑥ 지저분하다 ⑦ 맑고 깨끗하다 ⑧ 특별하다 ⑨ 고급스럽다
 - ⑩ 싸보인다 ⑪ 전통적이다 ⑫ 아방가르드하다 ⑬ 색시하다
 - ⑭ 기타 _____
- 9. 현재 황색 헤어스타일을 안 하는 이유
- 10. 황색 머리를 하였을 경우에 대한 느낌
- 11. 황색 헤어스타일 시술 후 모발 손상 시 본인이 직접 해본 대처 방법
- 12. 모발 손상은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하고 싶은 황색 머리 정도
- 13. 자신이 해보고 싶은 황색 헤어스타일 종류
 - ① 염색에 의한 황색
 - ② 탈색에 의한 황색
 - ③ 익스텐션(피스·파이버 등 이용)
 - ④ 브레이딩(실 이용)
 - ⑤ 기타 _____
- 14. 다음중 황색 헤어스타일은 어떤 패션스타일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 ① 정장 ② 드레시 ③ 운동복 ④ 캐주얼 ⑤ 언더웨어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